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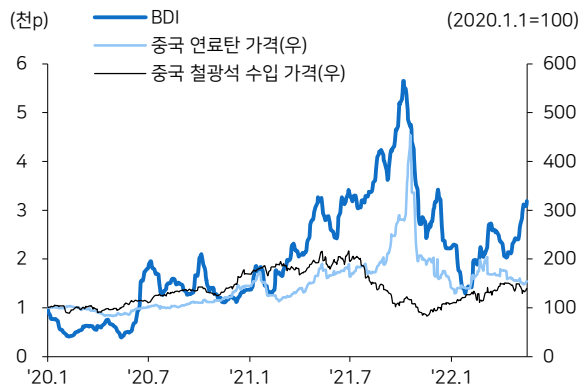
2022. 5. 23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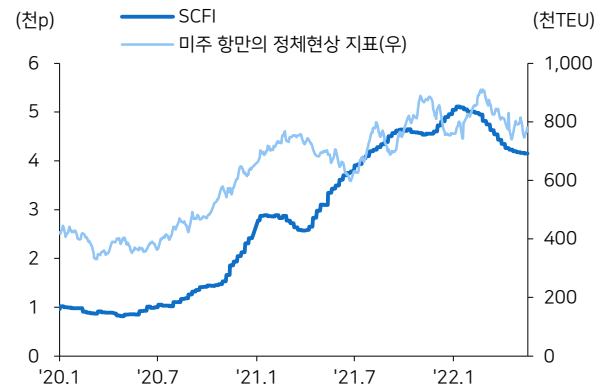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344p(+5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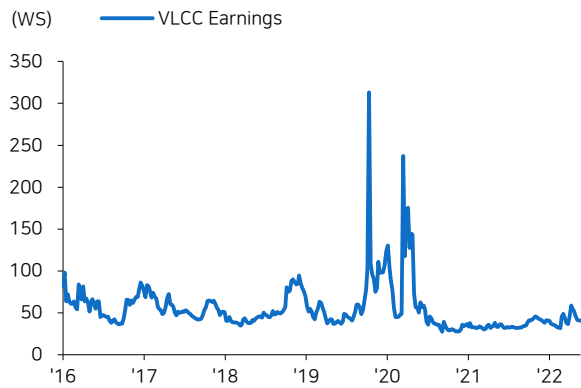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62.7(+14.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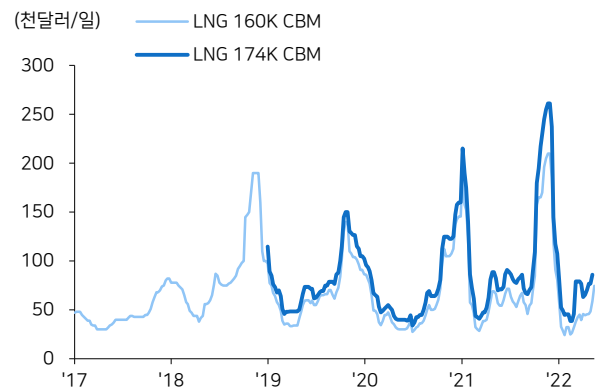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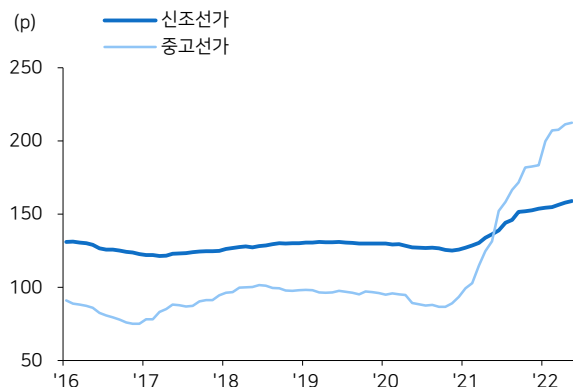
40.8p(+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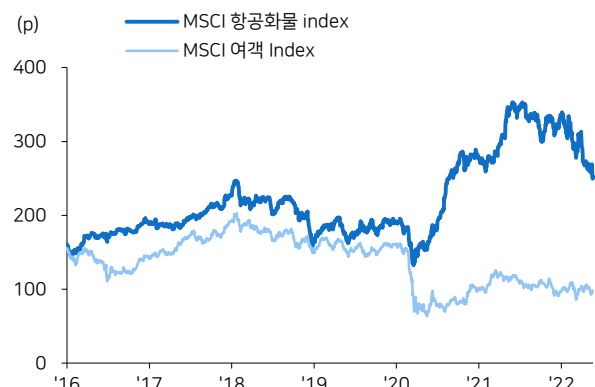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74.8p(+15.8p WoW)
98.0p(+12.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9.0p(+0.8p WoW)
212.3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53.4p(+3.7p DoD)
97.4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U의회, 'Fit for 55' 패키지 승인 전망

EU의회는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Fit for 55'패키지를 승인할 것으로 보도됨. 해당 패키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계획임. 패키지 통과시 유럽 항만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배출을 규제하며 EC가 권고했던 4단계 도입방안은 중단됨. (선박뉴스)

Canal congestion lifts Atlantic MR rates, but rally could stall as cargoes dwindle in Europe

최근 4거래일 동안 대서양 MR탱커 운임이 전주대비 52.3% 상승했는데, 파나마운하 정체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현재 최소 35척 PC탱커가 파나마운하 근처에 있다고 덧붙임. 한 브로커는 화물이 적은 상황으로 고운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Product tanker owners would welcome return of jet fuel volumes, Bimco says

BIMCO에 따르면 톤마일감소 추세 속 제트유 물동량 회복이 Product 탱커 선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됨.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제트유는 전체 물동량 중 8%를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33% 감소한 바 있음. 2019년보다 높은 CTK 수준에도 제트유 수요는 적었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고운임으로 제트유 수요 부진의 영향이 적었지만, 제트유 수요 회복은 4월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톤마일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China's Russian imports plan could double VLCC rates, analysts say

중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채우기 위해 값싼 러시아산 원유 매입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됨. 매입량이나 항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수입하면 기존 흑해-유럽 2,500NM에서 흑해-중국 항로 8,500NM으로 확대될 예정임. 한 증권사에 따르면 Suezmax로 1백만배럴/일 수송 시 톤마일은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현재 VLCC 운임 15,000달러/일에서 30,000달러/일로 증가하게 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러, 핀란드 가스관 잠갔다... 나토 가입 보복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보도됨. 표면적인 이유는 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 지불하기로 거부했다는 이유임. 그러나 핀란드는 연간 에너지 소비 중 가스 비중은 5%이고, 대안도 찾았다며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알려짐. (Tradewinds)

TMS, 삼성중공업에 LNG선 최고가 발주

삼성중공업이 지난 18일 수주한 LNG선 2척의 선주는 그리스 TMS Cardiff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됨. 조선사의 LNG선 건조 슬롯이 거의 바닥난 수준으로 발주에 성공하는 것이 놀라운 상황으로 알려짐. 한 시장 관계자는 재래식 LNG선 가격으로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보도됨. 선가는 척당 2.31억달러로, 납기는 2026년 3월까지임. (선박뉴스)